

성폭력 피해여성의 경험에 관한 연구

김경희 · 남선영 · 지순주* · 권혜진 · 정연강

중앙대학교 의과대학 간호학과

* 중앙대학교 부속 용산병원 간호과

A Grounded theory Approach on the Experience of Sexual Abuse Victims

Kyung-Hee Kim, Sun-Young Nam, Soon-Ju Chee*,

Hye-Jin Kwon and Yeon-Kang Chung

Department of Nursing, Joong-ang University

* *Nursing part, Yung-San Axillary Hospital of Joong-ang University*

ABSTRACT

This studies designed to work out a theoretical framework on the experience of sexual abuse from the perspective of grounded theory in an effort to provide more practical and efficient nursing intervention for female victims.

The subcategories identified were "sexual abuse", "threatening", "absent mindness", "embarrassment", "horripilation", "dizziness", "wondrousness", "filthiness", "sexual curiosity", "violence level", "victim's age", "neighbors response", "victims personality", "common experience", "sexual abuse information", "family relations", "level of familiarity", "hiding", "suppression", "self-torture", "self-protection", "avoidance", "asking aid", "withdrawal", "hatred", "confusion", "dodging", "remnant", and "pursuing".

The 29 subcategories given above were further integrated into 16 categories such as "victimizedness", "being astounded", "filthiness", "degree", "developmental stage", "response pattern", "personality", "rarity", "information availability", "family support", "cover-up", "escaping", "informing", "negative internalization", and "positive pursuit of change".

The core categories linked to all the other categories turned out to be "being taken aback" and "filthiness" incorporating the relevant subcategories.

A total of 23 theoretical hypothesis emerged in the process of analyzing data.

1. the grater sexual curiosity, the weaker the senses of being taken aback and filthiness.
2. The weaker sexual curiosity, the stronger the senses of being taken aback and filthiness.
3. The stronger the level of violence, The more violent the senses of being taken aback and filthiness.
4. The lower the level of violence, the weaker the senses of being taken aback and filthiness.
5. The younger the victims, the stronger the senses of being taken aback and filthiness.
6. The older the victims, The weaker the senses of being taken aback and filthiness.
7. 'Escaping' will transpire regardless of the given circumstances.
8. The weaker the senses of being taken aback and filthiness, the more probable 'informing' and 'escaping' transpire.
9. The stronger the senses of being taken aback and filthiness, the more probable 'informing' and 'escaping' transpire.

* 이 연구는 1995년도 중앙대학교 연구지원비에 의해 수행되었음.

10. The more protective the response from 'informing' and 'escaping' transpire around, the more likely the response to 'being taken aback' and 'filthiness' will be 'informing' and 'escaping'.

11. The more repelling the response from around, the more likely the response to 'being taken aback' and 'filthiness' will be 'covering-up' and 'escaping'.

12. The more open minded the personality of the subject, the more likely the response to 'being taken aback' and 'filthiness' will be 'informing' and 'escaping'.

13. The more closed the personality of the subject, the more likely the response to 'being taken aback' and 'filthiness' will be 'covering-up' and 'escaping'.

14. The more frequent the experience of sexual abuse, the more likely the response to 'being taken aback' and 'filthiness' will be 'informing' and 'escaping'.

15. The less frequent the experience of sexual abuse, the more likely the response to 'being taken aback' and 'filthiness' will be 'covering-up' and 'escaping'.

16. The more available information concerning sexual abuses, the more likely response to 'being taken aback' and 'filthiness' will be 'informing' and 'escaping'.

17. The less available information concerning sexual abuses, the more likely the response to 'being taken aback' and 'filthiness' will be 'covering-up' and 'escaping'.

18. The more cohesive the family of the subject, the more likely the response to 'being taken aback' and 'filthiness' will be 'informing' and 'escaping'.

19. The less cohesive the family of the subject, the more likely the response to 'being taken aback' and 'filthiness' will be 'covering-up' and 'escaping'.

20. The less familiar the subject is with the abuser, the more likely the response to 'being taken aback' and 'filthiness' will be 'informing' and 'escaping'.

21. The less familiar the subject is with the abuser, the more likely the response to 'being taken aback' and 'filthiness' will be 'covering-up' and 'escaping'.

22. The more likely the response to 'being taken aback' and 'filthiness' is 'informing' and 'escaping', the more positive changes the subject will pursue.

23. The more likely the response to 'being taken aback' and 'filthiness' is 'covering-up' and 'escaping', the more negative changes the subject will pursue.

The following four hypotheses were conformed in the process of data analysis.

1) In case the level of violence is strong but 'being taken aback' and 'filthiness' is weak because of strong sexual curiosity and also if information concerning sexual abuse is not readily available and the frequency is low, negative internalization marked by 'covering-up' and 'escaping' will take place despite the fact the subject is open-minded, the family is cohesive and the abuser is unfamiliar.

2) In case the level of violence is weak but 'being taken aback' and 'filthiness' is weak combined with weak sexual curiosity and also if information concerning sexual abuse is readily available and the response from around is protective and the frequency is high, the subject will pursue positive changes to 'being taken aback' and 'filthiness', further aided by the fact that the subject is open-minded, the family is cohesive and the abuser is unfamiliar.

3) In case the level of violence is strong and 'being taken abuse' and 'filthiness' is strong because of weak sexual curiosity and also if information concerning sexual abuse is readily available and the response from around is readily available and the response from around is protective and the frequency is low, the subject will pursue positive changes marked by 'informing' and 'escaping' despite the fact that the family cohesion is weak and the abuser is familiar.

4) In case the level of violence is strong and 'being taken aback' and 'filthiness' is strong because of weak sexual curiosity and also if information concerning sexual abuse is not readily available and the response from around is repelling and the frequency is low negative internalization like 'covering-up' and 'escaping' will take place, further aggravated by the fact that the subject's personality is closed, family cohesion is weak, and subject is familiar.

On the basis of the above finding, it is recommended that nursing intervention should focus on promoting the milieu conducive to the victims pursuing positive changes along with the adequate aids from protection facilities as well as from the people around them.

I. 서 론

사회의 급속한 산업화와 도시화, 이에 따른 전통적 윤리의식과 가치관의 붕괴과정에서 한국여성들이 강간(rape), 성적학대(sexual harrasment), 성적희롱(sexual molestation) 등 다양한 형태의 성적 폭력에 시달려 왔지만 사회적인 문제로 부각되기 시작한 것은 최근의 일이라고 할 수 있다.

현재 우리사회는 '성폭력 발생 세계 3위' 이면서도 변변한 사회적 제도적 장치하나 마련하지 못하고 성폭력이란 단어조차 입에 올리기 꺼려하는 척박한 풍토이다(한국 성폭력 상담소, 1993). 단지 성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특정 유형의 사고와 삶을 살아 낼 것이 요구되고 다양한 삶의 서태의 폭이 절반으로 막혀있는 사회이다.

특히 성폭력의 한 형태인 강간은 분명히 범죄의 하나로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강간이 일어나면 가해자 보다 오히려 피해자가 부끄러워하며 가해자에 못지 않은 사회적 비난이 피해자에게 쏟아진다. 우리사회의 성폭력에 대한 통념들은 실제 상황이나 피해자의 경험에 대한 충분한 고려없이 기존의 성차별 문화를 바탕으로 한 비 합리적인 인식으로 점철되어있다. 이제 성폭력은 남성의 본능적인 성충동에 따른 행위가 아니라 그 사회의 성문화와 여성의 지위를 반영하는 문화적이고 사회적인 현상으로 이해하여야한다.

한국여성의 성폭력 피해에 관한 종래의 연구는 주로 양적 연구에 치우쳐 피해여성의 경험의 내용을 심층 분석을 통해 규명하고 이를 바탕으로 피해여성들이 가장 절실하게 필요로 하는 정신적 지지 내지 돌봄을 제공하는데는 미흡하였다. 본 연구는 이점을 감안해 성폭력 피해여성의 경험을 논리, 실증주의에 기초한 양적 패러다임이 아니라 성폭력 피해 여성 간호연구에 새 지평을 열고 보다 양질의 간호 및 예방교육 연구를 위한 이론적 기초를 확립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II. 이론적 배경

1. 성폭력

성폭력은 성을 매개로 이루어지는 신체적, 언어적,

정신적, 폭력을 포괄하는 넓은 의미를 갖는다. 성폭력 대상 행위의 분류는 첫째 가정내 폭력으로 가족과의 관계에서 행해진 성추행, 상해등 가혹한 행위, 근친간의 강간, 간음행위 등을 말하며, 둘째 가정외 폭력은 가족이 아닌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행해진 강간, 강제추행, 준강간, 준강제추행, 업무상에 의한 간음, 성적강요행위, 혼인빙자간음행위, 매음에 관한 행위, 성적희롱행위를 말한다. 셋째 아동에 대한 성폭행으로는 간음, 추행, 약취유인, 음행매개행위가 속한다. 성폭력의 유형은 음란전화, 성기노출, 성적희롱, 가벼운 추행, 심한 추행, 어린이 성추행, 강간미수, 강간으로 분류되며, 음란전화는 익명의 사극으로부터 성적 자극을 유발하거나 외설스런 말을 담고 걸려오는 전화를 말하며 성기노출은 여러사람들 여성 또는 앞에서 성기를 일부러 노출시키거나 서있거나 돌아다니는 자의 행위를 말한다. 성적 희롱이란 어떤 사람이 말이나 몸짓으로 상대에게 성적 내용을 담은 희롱을 하는 것으로 신체접촉을 시도하지는 않는 것을 말한다. 가벼운 추행이란 어떤 남성이 고의로 여성의 또는 여성이 남성의 성감대를 건드리거나 일부러 몸을 밀착시키는 등의 행위를 말한다. 심한 추행이란 누가 누구에게 비록 성교를 시도하지 않았지만 그 상대의 뜻을 무시하고 혹은 강제로 키스, 애무등을 하는 행위를 말한다. 어린이 성추행이란 13세 미만의 어린이를 추행하거나 강제로 성교하는 행위를 말한다. 강간 미수란 어떤 가해자가 피해자의 뜻을 무시하고 또는 강제로 성교를 시도했으나 실패한 행위를 말한다. 강간이란 어떤 가해자가 피해자의 뜻을 무시하고 또는 강제로 성교를 한것을 말한다(박종문, 1992).

성폭력은 강간뿐아니라 추행, 성적희롱, 성기노출, 어린이 성추행, 윤간, 아내강간, 강도강간, 그리고 친족성 폭력은 여성에게 가해지는 모든 신체적, 언어적, 정신적 폭력을 포괄하는 광범위한 개념이다. 이중 친족성 폭력(Incest)은 합의된 정의는 없으나 대체로 혈연이나 인척관계에 의해 혼인이 금지된 사람 사이에서 발생하는 성관계를 의미한다. Bruce Gottlieb (1982)은 가족 혹은 확대가족관계(부, 모, 삼촌, 숙모, 조부모, 사촌, 의부, 친척)에서 발생한 비정상적 성관계, 특히 사회규범적으로나 법적으로 그런행위가 허용되지 않는 구성원간의 성관계로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친족은 가족법에 의하여 부계, 모계

의 8촌이내, 배우자와 배우자의 4촌까지로 되어있다. 아직 우리나라에서도 친족성폭력(incest)범위에 대해 합의된 것은 없고 근친에 의한 어린이 성폭력을 미성년자 강제추행이나 강간등으로 다스리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핵가족 내에서 일어나는 성폭력 즉, 아버지(친부, 의부, 양부)-딸관계, 형제-자매 관계, 어머니(친모, 의모, 양모)-아들 관계에서 발생하는 경우를 근친 성폭력이라 지칭하고 그의 친인척(법적 관계)에 의해 발생하는 경우를 친족성 폭력이라는 보다 확대된 용어로 분리해서 칭하고 있다(한국 성폭력상담소, 1993).

근친상간에 대한 정의는 미국에서도 각주마다 조금씩 차이가 나지만 가족 혹은 대리가족관계(부, 모, 삼촌, 숙모, 조부모, 사촌, 친족, 의부관계...)에서 발생한 비정상적 성관계 특히 사회 규범적으로나 법적으로 그런 행위가 허용되지 않는 가족 구성원간의 성관계를 말한다(Warner, 1982).

이상의 내용을 정리해보면 친족성 폭력은 대나수의 피해자가 어린이임으로 따로 다루어야 한다는 점에서 능요난 의미를 갖는다고 하겠다. 성폭력의 여러가지 분류중에서도 강간의 개념을 좀더 살펴보고자 한다.

강간은 법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으로 부녀를 간음한 행위로서 첫째 폭행과 협박은 상대방의 저항을 현저히 곤란케 하는 것이며, 둘째 강간은 남성성기를 여성의 성기에 조금이라도 삽입하면 성립 되는 것이며, 셋째 강간의 주체는 남성이고 객체는 여성이다. Greer(1975)는 '두 사람간의 상대적인 평등이 부재한 상황에서 성관계는 강간으로 고려해야만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Masi(1981)는 '모든 원치않는 성적 행위(sexual activity)'를 강간으로 규정하고 있다.

강간이란 당사자의 성에 관계없이 그리고 피해자의 저항 형태나 정도에 관계없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한 강제적인 성관계 행위를 말한다. 피해자는 언어나 몸짓, 육체적 저항을 통해 거부 의사를 나타내나, 가해자는 심리적, 육체적, 경제적, 사회적 강제로 성관계를 행한다. 피해자가 약이나 술에 취해 있는 등 거부 의사를 나타낼수 없는 상태에서의 일방적인 성관계도 강간으로 간주되며, 결혼내의 강제적인 성관계 역시 강간의 범주에 포함된다. 강간의 성립은 성기의 삽입을 기준으로 하되 구강이나 항문에의 삽입도 포함된다(이명선 1989).

강간의 기본원칙으로는 첫째, 강간과 일반적인 성관계를 구분짓는 가장 근본적인 요소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 가해자의 '강제'로 본다. 이때 강제는 육체적 강제는 물론 심리적, 경제적, 사회적 강제도 포함시킨다. 법적으로 혹은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강제는 '피해자의 저항을 곤란하게 하는 정도의 폭행 또는 협박'이다. 그런데 이러한 기준은 여성에 대한 물리적(육체적) 우월성을 반영하는 폭력형태만을 강조하고 있을뿐 성차별적 사회에서 가능한 남성의 심리적, 경제적, 사회적 우월성을 반영하는 다른 형태의 폭력은 무시하고 있다(Parkin, 1983). 둘째, 아내에 대한 남편의 '강제적인 성관계'도 강간에 포함시킨다. 서구에서는 부부간의 강간을 범죄로 인정하지 않는 법조문들이 비판의 표적이 되어 일대 수정운동이 벌어지고 현재 상당히 개정되어가는 추세이다(Bart & Brien 1985, Tong 1984). 우리나라의 경우, 법조문에는 명기되어 있지 않지만 '부부사이에는 정조의 의무가 있으므로 강간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판례가 있다(대법원 판례 1970). 이러한 통념은 결혼한 여성의 신체는 남편의 소유물로 간주한다는 전제를 내포하고 있다(Dowdeswell 1986). 셋째, 일반적으로 강간은 여성에 대한 남성의 강간이 주를 이루지만(Stevens 1980), 동성에 의한 강간이나 여성에 의한 남성의 강간도 가능하다는 페미니스트들의 주장이 있다(Bart 1979, Tong 1984).

성희롱은 권한이나 지위가 대등하지 못한 사이에서 바라지 않는 성적인 접근이 일어나게 되는 행위를 말하며, 전형적으로 불쾌한 경험으로 받아들여진다. 피해자들은 성적인 성격을 띤 언행이나 동의없이 이루어지는 신체적 접촉이나 성적인 접근을 수용해 줄 것에 대한 요구로 시달리게 된다. 가해자들은 대부분 직장에서 상사의 지위에 있는 남성으로 고용이나 승진이나 기타 직무상의 혜택으로 위협할 수 있다(Friedman Boumil & Taylor 우영은역 1994).

법률적 관점에서 보면 보복형 성희롱이란 바라지 않는 성적인 접근이 이루어지고, 그 수용 여부가 고용의 조건이거나 혹은 고용상의 결정이나 개인적인 이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경우를 말한다. 피고용인이 성적인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직장이나 승진이나 업무상의 혜택을 잃는 경우에 성립되는 것이다. 성희롱도 넓은 의미에서는 성폭력의 범주에 속한다. 하

지만 일반적인 성폭력과 성희롱을 구분해서 연구해야 하는 근거는 성폭력 일반에서 성희롱이 가지는 범주의 특수성을 고려하기 때문이다. 강간의 범주에 속하는 위력에 의한 강간은 정확히 표현한다면 성희롱의 한 유형이다. 성희롱의 범주에 속하는 위력에 의한 강간은 정확히 표현한다면 성희롱의 한 유형이다. 성희롱의 범주에는 비언어적 행위에서부터 언어적 육체적 행위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일상적으로는 성희롱은 강간에 비해 폭력의 정도가 덜 한 것으로 잘못 이해하는 경우가 있다(Kelly 1987).

성희롱의 대응양식 선택에 있어서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은 개인적인 측면보다는 사회적인 측면이 더 크다는 것이다. 성희롱의 대응양식의 선택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은 남성중심적인 성문화를 토대로 한 이분법적인 성 정체성 때문이라고 본다. 저항의 대응 양식을 취하는 여성들의 변화과정을 통해서 남성중심 성문화에 의한 강요된 여성성은 도전받고 있다고 볼 수 있다(이성은 1994).

Tangri, Burt, Johnson(1982)은 성희롱에 대해서 생물학적, 조직적, 사회문화적 모델 이상 세가지로 유형화하였다(Tangri 외 1982). 생물학적 모델은 인간관계에서 여성에 대한 단순한 호기심으로 인하여, 그리고 혹은 남성의 더 강한 성적 충동으로 인하여 자연적으로 일어나게 되는 유형을 말하며, 조직적인 모델은 성희롱이 발생하는 원인을 수직적인 위계구조로 파악하는 피해자들은 이에 대한 저항 의사를 확실히 표명하는 것이며 사회문화적 모델은 성희롱의 발생 원인을 여성과 남성의 차별화된 권력때문으로 보는 것으로 즉 남성과 여성은 다른 성규범에 의하여 서로 다른 사회화 과정을 거쳐서 서로 다른 성 정체성(gender identity)을 획득하게 되고 이러한 것은 사회 문화적구조에 의해서 조장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유사한 견해를 Gutek과 Morasch(1982)도 제기하고 있다.

박종문(1992)의 연구에 의하면 성폭력의 피해 상태는 1988년 1년동안에 발생한 숨은 성폭력을 추산해볼 때 인구 10만명당 강간의 발생건수는 485.6건 강도강간의 발생건수는 198.8건이며, 성폭력 피해를 유형별로 보면 가벼운 추행(76.4%), 성기 노출(74.5%), 성적 회롱(48.6%), 음란전화(46.3%), 심한 추행(23.7%), 강간미수(14.1%), 강간(7.7%), 어린이 성추행

(6.5%), 아내강간(67.3%)가 경험하였으며, 신고율은 강간 미수(1.9%), 강간(1.8%), 성적 회롱(1.2%), 성기노출(1.1%), 심한 추행(0.9%), 가벼운 추행(0.8%), 어린이 성추행(0.7%), 음란전화(0.6%)으로 나타났다. 성폭력을 처음으로 경험한 연령을 살펴보면 성적 회롱과 가벼운 추행, 심한추행과 강간미수의 경우 20세가 가장 많았으며, 강간의 경우는 17세 어린이 추행의 경우는 12세로 나타났다. 가해자로는 심한 추행(80.6%), 강간(80.1%), 강간미수(78.1%), 어린이 성추행(74.3%)가 아는사람이었고 성폭력이 발생하는 장소로는 심한 추행인 경우 한적한 길거리나 골목 22.5%, 야외의 한적한 곳 17.2%, 강간의 경우는 39.6%가 숙박업소에서 22.0%가 야외 한적한 곳에서 18.3%가 가해자의 집에서 일어나며, 가해자의 행위 방식은 심리적, 경제적, 사회적, 강제가 56.1% 물리적인 강제가 40.9%로 나타났다. 성폭력으로 인한 피해를 보면 성노출, 성적회롱, 가벼운 추행등의 비교적 경미한 성폭행을 경험한 여성들은 주로 자신의 일이나 공부에 지장을 받았을뿐 큰 피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심한 추행이나 특히 강간과 강간미수를 당한 여성들은 정신적 피해를 많이 호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하였다.

1988년 1년동안 신고된 강간이 5,000건을 넘고있으며, 1989년의 조사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강간 신고율은 2.2%으로 이 신고율로 실제 강간 발생건수를 추산해보면 우리나라에서 한해동안 25만건의 강간이 행해지고 있다고 하였다(한국성폭력상담소 1995). 1990년 한국 형사정책연구원에서 보고한 성폭행 실태에 관한 조사에 의하면 2,262명의 응답여성중 146명(6.5%)의 여성이 어린이 성폭행을 경험하고 대부분 피해자는 여자어린이였다(한국성폭력상담소 1991).

성폭력 피해자에 대해 간호사의 역할로는 상담 및 사회적응을 돕는 일이라고 할수 있다. 간호사는 피해자가 말로 표현할수 있도록 도와주어 죄책감을 감소시켜주고 자신의 방어기제를 잘 활용하여 중화시킴으로서 빠른 회복을 돕고 심한 경우 자살 충동이나 우울을 느낄수 있으므로 주의깊게 관찰하여야 한다. 상담 간호의 예로는 내담자의 말을 충분히 들어주어야 한다. 중립을 지켜서 흥분이나 격한 감정표현은 삼가고 당시의 상황에 대하여 자세히 물어보는 것이 바람직하며 위로의 말은 하지 않는것이 좋다. 책망하는 발언

이나 충고적인 말은 하지 않는 것이 좋으며 일반상식적인 발언 예를 들면 '여행을 떠나보라'는 식의 무책임한 발언은 삼가한다등을 들 수 있다(이나미 1993).

2. 근거이론 연구방법론

성폭력에 관한 새로운 이론의 정립을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연구 방법론으로 근거이론을 채택 하였다. 본 장에서는 본 연구가 근거이론 연구방법론을 선택한 논거를 제시하고 이어 근거이론의 자료 분석방법에 대하여 설명하고자 한다.

다른 사회과학 연구 방법론과 비교해 볼 때, 근거이론 방법론은 다음과 같은 특성을 가진다.

근거이론 방법론은 우선 자료수집(data collection)에 있어서 다른 방법론과는 다르다. 근거이론 연구방법은 주어진 상황을 대상자가 보는 그대로 보기 위해서, 조작된 환경보다는 있는 그대로의 환경을 선호한다.

근거이론 연구에서는 자료수집을 위해 개방적 면담, 창조적 면담, 핵심 집단 면담, 참여자 관찰, 문서 분석, 개인적 경험등 다양한 자료수집 방법을 사용한다. 다른 방법론들이 제한된 자료 수집방법만을 사용하는 것과 비교해 근거이론은 이렇게 다양한 종류의 자료수집 방법을 사용하므로 인간의 행동이 발생하고 형성되는 사회적 상황을 보다 자세히 관찰 할 수 있다는 잇점을 가진다.

이처럼 사회적 상황을 대상자의 관점에서, 보다 면밀히 관찰 할 수 있게 될 때, 연구자는 자신의 선입견과 가정으로부터 자유로워 질 수 있으며 아울러 연구 대상인 현상이 지닌 보다 광범위한 맥락과 조건을 포괄적으로 관찰 할 수 있게 된다.

본 연구가 다루고자 하는 성폭력은 사람들과 사람들사이의 교섭 속에서 발생하며 흔히 상징적 대상에 대한 주관적 해석의 결과로 발생하고 아울러 성폭력은 해석과정에서 변형, 발전되는 형성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성폭력연구는 현상의 맥락과 조건의 관찰과 배제되는 양적연구방법 보다는 질적연구방법, 특히 근거이론연구방법이 보다 적합한 것으로 생각된다. Glaser & Strauss(1965, 1968)의 'Awareness of Dying'와 'Time for Dying'이 임종 현상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는 데 커다란 기여를 한 것으로 평가를 받고 있는 것은 이같은 이유 때문이다.

근거이론 연구방법은 자료의 분석에 있어서도 양적인 연구방법과는 다르다. 양적인 연구방법과는 달리 관찰과 정보의 획득에 장애가 되는 가설을 먼저 전제하지 않으므로 효과적으로 선입견을 배제 할 수 있다. 근거이론에 따른 분석과정도 가설의 검증과정이 포함되지만, 양적연구 방법과는 달리 가설의 검증은 근거이론의 핵심적 요소는 아니다.

근거이론 연구방법의 자료분석은 다른 질적연구, 예를 들어 문화기술 연구방법이나 현상학적 연구방법 등과는 다르다(Strauss & Corbin, 1990) 근거이론 연구방법의 자료 분석 역시 다른 질적 연구방법과 마찬가지로 현상 기술과정을 포함하지만 근거이론 방법은 오히려 자료의 해석에 치중한다. 이렇게 함으로서 연구자는 보다 높은 단계의 추상화에 도달하여 개념간의 포괄적 관계를 발견하며, 자료를 주제에 따라 서술적으로 조직하는 수준에 머무르지 않고 새로운 이론을 개발 할 수 있게 된다. 근거이론 연구방법에 있어서 분석의 초점은 실제 자료에 기반을 둔 이론의 개발에 있으며, 이 과정은 자료의 수집, 분석, 그리고 이론적 구성 과정에서 끊임없이 수정되는 과정이라는 점에서 다른 어떤 연구방법과도 다르다.

3. 근거이론 연구방법론에 의한 연구절차 및 방법

1) 연구주제 개발과 연구과제 발견

근거이론 연구방법에 있어서 가장 어려운 부분 중의 하나가 연구주제의 개발과 연구과제의 발견이다. Strauss & Corbin(1990)에 따르면 연구주제 개발을 위한 두가지 기본적인 방법이 있는데, 첫째, 연구주제를 먼저 결정한 다음 관련 분야에서 오랜 연구 경험을 가진 연구자의 조언을 받아 연구과제를 결정하는 방법과, 둘째, 문헌고찰을 통하여 연구과제를 선정하는 방법이 있다.

양적연구를 할 때, 연구자는 문헌고찰을 통하여 자신의 관심 분야에 있어서 어떤 선행 연구가 있는지, 아직까지도 규명되지 않은 문제는 무엇인지 알 수 있다. 문헌고찰은 또한 이론적, 개념적 구조를 개발하고 연구결과를 해석하는 데 있어서도 중요한 수단이다.

근거이론 연구방법의 목적은 양적연구에 있어서와 같이 변인간의 관계를 검증하는데 있는 것이 아니라, 현상과 관련된 새로운 범주의 발견, 또한 범주간의 관계를 구성하는 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연구자가 문헌

고찰을 통하여 미리 연구 할 변인 또는 범주를 결정해 놓는다면 새로운 범주의 발견은 불가능 해진다. 다시 말해서 근거이론 연구는 연구과정 자체에서 끊임 없이 발전해 나가는 이론적 틀의 관점에서 주어진 현상을 설명하는 것이 그 목적이기 때문에 문헌고찰이 연구 할 변인 또는 범주를 발견하는 수단이어서는 안 된다.

문헌고찰은 1) 이론적 감수성(theoretical sensitivity)을 자극하는 수단으로서 2) 이차적인 자료원으로서 주로 활용해야 한다. 그 밖에도 문헌고찰은 질문의 개발, 이론적 표본추출의 방향설정, 그리고 보충적인 검증 방법등에 활용 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문헌고찰은 연구의 시작에 앞서 마쳐야 할 작업이 아니라 연구의 각 연구단계에 맞추어 진행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다. 이 같은 점에 유의 하면서 본 연구에서는 연구과정에 알맞은 전문적, 비전문적 문헌에 대한 고찰을 단계적으로 진행 하였다.

2) 표본추출

표본추출의 형태는 부호화 과정에 따라 달라 저야 한다. 첫째, 개방적 부호화 과정에서 사용하는 개방적 표본추출(open sampling)은 가능한 한 많은 범주를 찾는 목적이 있으므로 가장 많은 범주를 제공하게 될 상황과 장소, 그리고 대상자를 선택해야 한다. 둘째, 축 부호화(axial coding)과정에서는 상대적 표본추출과 변화적 표본추출을 하는 데, 이는 차원적 수준이 각기 다를 때 나타나는 결과를 추출하기 위함이다. 셋째, 마지막 단계인 선택적 부호화(selective coding)과정에서는 판별 표본추출(discriminate sampling)을 하는 데, 이는 미흡한 범주를 채우고 범주 간의 관계를 발견하면서 story-line을 확인 할 수 있는 기회를 최대화 시켜 줄 대상자와 장소를 선택하는 것으로 설정된 가설을 지속적으로 검증하며 수정하고 재검토하는데 목적을 둔다. 이 단계는 더 이상 새로운 범주들이 나타나지 않을 때까지 즉 이론적 포화 상태에 이를 때까지 계속된다.

3) 면담 방법

본 연구에서는 대상자들을 다음과 같은 방법에 따라 면담을 진행 하였다. 연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본 연구자는 되도록 현상을 대상자가 보는 그대로 파악하기 위해, 대상자가 스스로 이야기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했으며, 이론바 능동적 청취

(active listening)가 되지 않도록 유의 하였다. 또한 Spradley(1979)가 지적 한 대로 대상자와의 관계형성이 대상자의 저항을 최소화하고 정보의 자유로운 흐름을 극대화 해 줄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대상자와의 관계형성을 위해 노력 하였다. 즉 근거이론은 대상자의 관점에서 현상을 보고, 대상자의 언어로 기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는 점에서 연구자의 개념이 대상자의 답변에 투사되는 청취방법(active listening)을 피해야 한다.

첫째, 연구자와 대상자가 지나치게 친밀 할 경우 면담이 원래 목적에서 이탈 할 우려가 있고, 둘째, 민감한 문제를 질문 할 때 연구자는 대상자와 일정한 거리를 유지 해야 하는 데, 대상자와의 관계 형성이 오히려 이를 저해 할 수 있다. 이 같은 두가지 문제점에 유의 하면서 연구자는 대상자가 보다 자유롭게 이야기 할 수 있도록 관계형성을 위해 노력하면서도 필요 할 때는 연구자가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기 위하여 노력 하였다.

4) 자료의 분석 방법

근거이론 연구방법은 상징의 의미와 의미간의 관계를 알기 위해 대상자가 보여주는 상호작용을 집중적으로 관찰하는 연구방법이다. 즉 대상자 상호간의 관계, 대상자와 환경과의 관계를 상호작용의 조건, 전략, 결과등의 맥락에서 연구 한다. 자료속에서 조건이 변화하는 것에 상응하여 어떤 상호작용이 일어났는지를 추적 함으로서 연구대상인 현상의 전개 과정과 변화를 파악하는 것이다. 이 같은 목적을 위해 근거이론 연구방법에서 사용하는 기법은 부호화(coding), 범주화(categorizing), 범주의 특성(properties)을 발견하고, 이를 정도의 영역(dimension)으로 기술하여, 관계 유형과 핵심범주를 발견하는 것을 근간으로 한다.

(1) 부호화(coding)

개방적 부호화(open coding): 개방적 부호화란 자료의 개념화 작업으로서 주로 연구 초기 단계에서 사용된다. 개방적 부호화는 해석적 과정으로 자료에 나타나는 현상을 기존의 해석 방법을 뛰어넘는 새로운 분석적인 통찰력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주어진 현상을 상호작용을 중심으로 유사점과 차이점을 비교 하면서 개념을 도출하고 이렇게 드러난 새로운 개념에 이름을 붙이는(labeling)과정이다. 개방적 부호화

에 이어 동일 현상에 속하는 것으로 보이는 개념들을 하나로 묶는 범주화(categorizing)과정이 진행되는 데, 범주가 나타내는 현상도 개념적 이름(conceptual name) 즉 명칭이 필요하다는 점에서는 개념과는 다르지 않으나, 개념 보다는 훨씬 더 높은 수준의 추상화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범주화 과정에서는 여러개의 하위 범주(subcategory)들을 모아서 보다 큰 범주로 발전시킨다. 각 범주는 차원과 특성을 가진다.

즉 부호화(axial coding): 하위 범주들을 특성과 정도의 영역을 중심으로 현상과 연결시키는 과정이다. 즉 부호화의 첫단계는 범주들을 인과관계적 조건(causal conditions), 맥락(context), 중재상황(intervening conditions), 전략(action/interaction strategies), 그리고 결과(consequences)로 분류하고 이것을 범주와 연결시켜서 paradigm model을 개발하는 과정이다. 이를 간단하게 도해 하면 다음과 같다.

인과관계적 조건(causal conditions: 현상의 발생 또는 발전의 원인이 되는 사건)-현상(phenomenon : 중심적 관념 또는 사건으로서 일련의 actions/interactions이 관리하려는 또는 관련되어 있는 대상)-맥락(context: 현상과 관련되어 있는 일련의 특성)-중재상황(intervening conditions: 현상과 관련되어 있는 광범위한 구조적 맥락)-전략(action/interaction strategies: 과정적, 발전적 성격의 전략 또는 기술을 뜻하며 목표 지향적 특성)-결과(consequences)

선택적 부호화(selective coding): 선택적 부호화 과정에서는 모든 하위 범주들을 패러다임 모델을 사용해 중심현상을 연결고리로 삼아 통합하는 과정으로서 제 1단계에서는 분석적 이야기(story-line)의 전개, 즉 중심현상과 관련하여 서술적인 이야기를 개념화한다. 제 2단계에서는 패러다임을 사용하여 하위 범주를 핵심범주에 연결하며 제 3단계에서는 정도의 영역을 중심으로 각 범주들을 서로 연결하며, 제 4단계에서는 각 범주간의 관계를 자료와 비교하여 검증하고 제 5단계 즉 마지막 단계에서 좀더 개발되어야 할 미흡한 범주들을 채워 넣는 일을 한다. 주의 할 점은 상기한 5단계의 연구과정이 반드시 순서대로만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각 연구단계의 필요에 따라 그 순서가 뒤바뀔 수 있다.

(2) 근거이론의 평가

① 신뢰도

근거이론의 연구에 신뢰도를 제공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요인들이다. Brink(1980)는 등가란 면접을 하는 동안 같은 질문을 동일하거나 혹은 다른 형태로 하는 것이라고 정의한다. 이는 연구자에게 신뢰도 측정 시 동일한 반응들이 빈번하게 나타나는 것에 근거를 두고 얻어진 정보의 일관성 또는 일관성 결여라는 증거를 제공한다. 그러나 등가는 한번의 면접이나 단체 모임에서의 면접보다는 시간이 흐름에 따라 같은 질문을 동일한 또는 다른 형태로 할 때 보다 자연스럽게 연구자의 반응속에 나타나게 된다. 연구가 진행되는 동안 제기된 주제와 형태들이 반복적으로 나타남을 확인 할 때 신뢰도가 증가 한다. 연구기간 또한 그 신뢰도를 증가시키는 중요한 요인이다.

② 타당도

Leininger(1985)는 양적연구와 질적연구는 그 목적, 목표, 의도가 서로 다르므로 타당성의 평가에 각기 다른 기준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양적 연구에서는 타당성이란 그 연구 절차가 측정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것을 실제로 측정 할 수 있는 정도, 한 연구에 있어서 측정과 연구대상인 변수들이 얼마나 대표적인가 하는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반면에 질적 연구에 있어서 타당성은 연구대상인 특정 현상의 본질, 정수, 의미, 그리고 특징을 이해하고 지식을 얻는 것 그 자체를 의미한다. 다시말해 목표는 측정이 아니라 현상을 알고 이해하는 것이다.

III. 자료 수집 절차

1. 자료 수집 방법

본 연구에서는 5명의 여성과의 상담자료와 성폭력 상담소의 상담사례집을 분석하였다. 자료수집기간은 1995년 3월 부터 1995년 11월 까지 이었다. 개방적 부호화에 필요한 자료수집을 목적으로 면담대상자는 연구자가 간접적으로 알게된 사람에게 연구의 취지를 설명한 후 대상자의 동의를 받아 면담을 했으며, 개방적 표본추출 방식에 따라 가능한 다양한 개념과 범주를 찾는데 주안점을 두고 광범위한 것이 되도록 노력하였다. 사례집의 자료는 앞서 면담한 5명의 대상자

의 자료를 분석하고 부호화 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개념과 범주의에 추가로 더 많은 개념과 범주를 발견하면서 동시에 범주 특성의 정도의 영역의 차이에 기인한 상호작용 변화의 관찰에 초점을 맞추어 분석하였다.

우선 대상자들에게 연구의 취지를 설명하고 협조를 요청하자 대상자들은 모두 기꺼이 면담에 응해 주었으며, 이들의 허락을 받아 면담내용을 모두 녹음기에 녹음을 한 후 녹취록을 작성하여 자료화 하였다. 그러나 강간의 경험이 있는 첫번째 대상자는 연구자와 면식이 있는 상태이었으므로 면담에 기꺼이 응하였지만 대상자의 프라이버시 보호라는 점에서 추가로 강간경험 대상자를 찾기어려웠다. 강간경험 대상자의 상담 자료는 성폭력상담소 상담자료를 추가로 이용하여 분석하였으며, 성폭력 중 성희롱 경험자 4명과의 면담을 통하여 성폭력에 관한 경험을 분석하였다. 면담시간은 1시간에서 3시간 30분이었으며, 20~30분동안은 관계형성에 주력하였고, 나머지 40분에서 1시간동안 연구를 위한 면담을 실시 하였다. 분석은 자료수집과 동시에 진행 하였으며 자료분석결과는 다음 대상자에 대한 질문에 반영, 비교하였으며, 각대상자에게 나타난 개념이 다음 대상자에게도 나타나는지 확인했다. 나타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원인과 상황이 무엇인지를 밝힐 수 있는 질문을 지속적으로하면서 면담을 계속하였다. 대상자 3명과의 면담을 마친 시점에서 문헌고찰을 통하여 분석결과 나타난 개념들과 비교하였으며, 이렇게 보다 높아진 이론적 민감성에 기초해 다음 대상자들과 면담을 하였다.

면담장소는 4명의 경우 본연구자의 연구실, 1명은 다른 손님이 있는 한결한 찻집이었다.

대상자들의 연령은 만 21세 부터 28세까지로 학력별로는 大2 이 2명, 大4이 1명, 직장여성이 2명 이었다.

면담시 관계형성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대상자가 잘 알고 있으며, 깊게 신뢰하고 있는 사람들의 소개 또는 추천을 받아 대상자가 가급적 편안한 마음을 가지고 면담에 응하도록 노력하였다. 대상자들에게 연구목적을 설명하고 대상자의 허락을 받은 뒤 면담과정 전부를 녹음 했으며 면담 그리고 특히 녹음기의 사용에 대한 거부감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20~30분 가량 일상적인 학교생활이나 직장생활 등 다른 관심사

들에 대해 이야기 한다는 본격적인 면담에 들어 갔으며, 면담과정에서도 가능한 면담자 스스로 자연스럽게 이야기하도록 이른바 능동적 청취가 되지 않도록 특별히 유의 하였다.

이렇게 수집된 자료는 모두 녹취록 또는 면담 기록을 작성하여 자료화 하였다.

IV. 자료분석 결과

본 장에서는 근거자료 분석결과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자료분석을 통해 나타난 128가지 개념 즉 '신체적 밀착' '문지름' '음란전화' '언어적 성추행' '성기노출' '성희롱' '쫓아다님' '지속적요구' '괴롭힘' '행패' '결혼미끼' '속임' '강제적성관계' '일방적인 끝냄' '트집잡음' '의지함' '따름' '민음' '설마함' '어리석음' '무지' '순진' '급작스러움' '어리둥절함' '혼란함' '겁남' '뜻밖임' '무서움' '두려움' '공포' '싫음' '소름끼침' '까무라침' '힘듦' '혼미함' '신기함' '취함' '들뜬기분' '기분나쁨' '느끼함' '꺼림직함' '불쾌함' '짐승같음' '치욕스러움' '강한호기심' '약한호기심' '심한폭력' '경한폭력' '미성년' '성년' '보호적반응' '배자적반응' '개방적성격' '폐쇄적성격' '잦은경험' '드문경험' '많은정보' '적은정보' '강한옹집력' '약한옹집력' '아는사람' '잘대해줌' '근친' '침묵' '비밀로함' '감춤' '수면' '잊으려함' '학업몰두' '자기비하' '자살기도' '자포자기' '자책' '떨쳐냄' '선택적기억' '비교함' '기분전환' '가출' '끊음' '가림' '비킴' '뛰어감' '떨어놓음' '드러냄' '보호시설방문' '경찰서신고' '캐내려함' '법적투쟁' '정신치료요구' '무기력' '순결상실감' '죄의식' '수치심' '정신장애에 대한 두려움' '노출불안' '보복불안' '막연한 불안감' '분노' '원망' '배신감' '협오감' '적개심' '억울함' '초조함' '안전부절함' '자제력상실' '통제력상실' '선택적남성외심' '남성불신' '남성공포' '남성기피' '결혼에 대한 두려움' '대인관계장애' '성관계장애' '소심함' '겁 많음' '경계함' '떠오름' '연상됨' '악몽' '벗어나고싶음' '받아들임' '끝냄' '자신감회복' '불안감해소' '보호받음' '공포감소' 등에 대한 근거자료를 제시한다.

둘째, 이들을 다시 '성폭행' '협박' '방심' '당황함' '끔찍함' '아찔함' '경이로움' '불결함' '성적호기심' '폭력정도' '피해자연령' '주변반응' '피해자성격' '다수인의 경험' '성폭력정보' '가족관계' '친분관계' '숨김' '억압' '자

학' '자위' '피함' '도움요청' '위축' '중요' '혼란' '기피' '납음' '변화추구' 등 29개의 하위범주로 묶고, 다시 '성폭행' '협박' '방심' 등의 3가지 하위범주를 "당함"이라는 상위범주로 통합하고, '당황함' '끔찍함' '아찔함' '경이 고움'은 '놀람'으로, '불결함'은 '불결'로 통합하고, '성적 호기심' '폭력정도'는 "정도성"으로, '피해자연령'은 "발달단계"로 통합하고, '주변반응'은 "반응형태"로, '피해자성격'은 "성격"으로, '다수인의 경험'은 "회귀성"으로, '성폭력정보'는 "정보량"으로, '가족관계'는 "가족지지"로, '친분관계'는 "면식정도"로 통합하고, '숨김' '억압' '자학' '자위는 "은폐"로, '피함'은 "피신"으로, '도움요청'은 "알림"으로 통합하고, '위축' '중요' '혼란' '기피' '납음'은 "부정적 내재화"로, '변화추구'는 "긍정적 변화추구"라는 상위범주로 통합하여 16개의 상위범주로 묶었다. 이들 중에서도 특히 "놀람"과 "불결"은 중심현상인 "소스라침"과 "더러움"으로 통합하였다.

이처럼 "소스라침"과 "더러움"이 본연구의 핵심범주로 나타났다.

셋째, 근거이론의 틀에 맞추어 각 범주들이 어떤 구조적 맥락 속에서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가를 분석하고 아울러 중재 상황이 이들 관계 사이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 보겠다.

넷째, 자료의 전반적 개요라고 할 수 있는 분석적 이야기를 제시하고 관계유형을 분류하고 이에 따라 자료를 체계화하며 서로 다른 범주들의 관계를 진술하고자 한다.

2. 근거이론 패러다임에 따른 범주 및 과정분석(표 1 참조)

1) 성폭력 피해여성의 경험에 대한 근거이론 패러다임에 따른 범주

Strauss & Corbin(1990)이 제시한 근거이론 개발과정에 따라 개방코딩과정에서 나타난 범주를 각각 인과적 조건, 중심현상, 맥락, 중재상황, 전략, 결과등으로 분류하고, 이들이 중심현상을 축으로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가를 다음과 같이 밝혀보기로 한다.

【인과적 조건】 성폭행, 협박, 방심

본 연구에서 근거자료를 분석한 결과, 중심현상 "소스라침"과 "더러움"의 원인 즉 인과적 조건은 "성폭행", "협박", "방심" 등의 범주로 나타났다.

현상의 발생과 인과적 관계에 있는 선행사건이 대상자에게 "소스라침"과 "더러움"을 느끼게 하는 과정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피해자는 버스나 지하철에서, 직장내에서, 또는 거리를 지나면서 성희롱, 성추행을 당할 때, 유란전화를 받아 언어적 성추행을 당할 때, 강제적인 성관계를 지속적으로 요구하면서 쫓아다니는 협박을 당할 때, 결혼을 미기로 성관계를 요구하며 행패를 부리는 협박을 당할 때, 강압적으로 성관계를 요구해 오다가 사소한 트집을 잡으며 일방적으로 관계를 끊자는 협박을 당할 때, 믿고 신뢰해 온 사람, 또는 낯선 사람에게 돌발적으로 강간을 당할 때, 내상자는 "소스라침"과 "더러움"을 경험한다.

이와같이 이상에서 열거한 다양한 사건들은 모두가 "소스라침"과 "더러움"을 느끼게 하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므로 인과적 조건이라고 할 수 있다.

이들은 강도와 빈도, 기간이라고 하는 속성을 가지고 있으며 정도의 영역은 각각 강-약, 잦음-드물, 장-단, 일 것으로 나타났다.

【중심현상】 소스라침, 더러움

본 연구에서는 성폭력 피해여성의 경험과 관련된 모든 일련의 행동이 "소스라침"과 "더러움"이라고 하는 현상을 중심축으로 하여 전개되고 있었는데 이것이 "소스라침"과 "더러움"이 중심현상을 이루고 있음을 보여주는 근거이다.

근거자료를 분석한 결과 인과적 조건에 의해 대상자의 내면에 발생한 "소스라침"과 "더러움"은 대상자의 사회적 맥락 그리고 그가 처한 중재상황과의 상호작용을 거치면서 다양한 양상으로 전개되는데, 연결코딩과정에서 중심현상 "소스라침"과 "더러움"은 모든 범주와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당함"에 의해 발생한 "소스라침"과 "더러움"은 주어진 상황에 따라 은폐되기도 하고 반대로 노출되기도 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대상자의 피신으로 재발되지 않기도 한다. 이러한 대응전략을 통하여 "소스라침"과 "더러움"은 부정적으로 대상자에게 내재화되거나 대상자로부터 벗어나려고 하는 긍정적인 변화를 추구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소스라침"과 "더러움"의 속성은 강도, 기간, 빈도이며 정도의 영역은 강-약, 장-단, 잦음-드물이다.

【맥락】정도성, 발달단계

표 1. 근거이론 패러다임에 따른 범주

개 념	하위범주	상위범주	패러다임
신체적 밀착, 문지름, 음란전화, 언어적성추행, 성기노출, 성희롱 쫓아다님, 지속적요구, 괴롭힘, 행패, 결혼미끼, 속임, 강제적성관계, 일방적인글내, 트집잡음 의지함, 따름, 믿음, 설마함, 어리석음, 무지, 순진	성폭행 협박 방심	당함	인과적 조건: 성폭행 협박 방심
급작스러움, 어리둥절함, 혼란함, 겁남, 뜻밖임 무서움, 두려움, 공포, 싫음, 소름끼침 까무라침, 험담, 혼미함 신기함, 취함, 들뜬기분 기분나쁨, 느끼함, 꺼림칙함, 불쾌함, 짐승같음, 치욕스러움	당황함 끔찍함 아찔함 경이로움 불결함	놀람 소스라침 더러움 불결	중심현상: 소스라침 더러움
강한호기심, 약한호기심 심한폭력, 경한폭력 미성년, 성년	성적호기심 폭력정도 피해자연령	정도성 발달단계	맥락: 정도성 발달단계
보호적반응, 배타적반응 개방적성격, 폐쇄적성격 맞은경험, 드문경험 많은 정보, 적은정보 강한응집력, 약한응집력 아는사람, 잘대해줌, 근친	주변반응 피해자성격 다수인의 경험 성폭력정도 가족관계 친분관계	반응형태 성 격 회귀성 정보량 가족지지 면식정도	중재상황: 반응형태 성격 회귀성 정보량 가족지지 면식정도
침묵, 비밀로함, 감춤 수면, 잊으려함, 학업몰두 자기비하, 자살기도, 지포자기, 자책 떨쳐냄, 선택적기억, 비교함, 기본전환 가출, 끊음, 가림, 비침, 뛰어감 털어놓음, 드러냄, 보호시설방문, 경찰서신고, 캐내려함, 법적투쟁, 정신치료요구	숨 김 억 압 자 학 자 위 피 함 도움요청	은 폐 피 신 림	전략: 은 폐 피 신 알 림
무기력, 순결상실감, 죄의식, 수치심, 정신장애에 대한 두려움, 노출 불안, 보복불안, 막연한 불안감 분노, 원망, 배신감, 혐오감, 적개심, 억울함 초조함, 안절부절함, 자제력상실, 통제력상실 선택적남성 의심, 남성불신, 남성공포, 남성기피 대인관계장애, 성관계장애, 소심함, 겁 많음, 강세함 떠오름, 연상됨, 악몽 벗어나고싶음, 받아들임, 끝냄, 자신감회복, 불안감해소, 보호받음, 공포감소	위축 중오 혼란 기피 남음 변화추구	부정적 내재화 공정적 변화추구	결과: 부정적 내재화 공정적 변화추구

본 연구에서 근거자료를 분석한 결과 "소스라침"과 "더러움"의 전개과정이 대상자의 성적 호기심의 정도 및 가해자의 폭력정도 즉 정도성과 대상자의 발달단계에 따라서 서로 다른 양상으로 전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맥락으로서의 정도성이란 대상자가 가지고 있는 성적 호기심 및 가해자의 성폭력 정도를 일컬으며 강한

호기심, 약한호기심, 심한폭력, 경한폭력등이 이에 속하고, 발달단계란 대상자의 성장단계를 일컬으며 미성년기, 성년기 등이 이에 속한다.

대상자의 성적호기심 및 가해자의 폭력정도에 따라, 또한 대상자의 발달단계에 따라 대상자가 "소스라침"과 "더러움"을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 즉 전략이 달라지고 따라서 결과도 달라진다.

표 2. 인과적 조건의 속성과 정도의 영역

범 주	속 성	정도의 영역
성 폭 행	강 도	강함-약함
협 박	기 간	장-단
공 심	권 도	많음-적음

표 3. 중심현상의 속성과 정도의 영역

범 주	속 성	정도의 영역
소스라침	강 도	강함-약함
더 러움	기 간	장-단
	빈 도	찾음-드물

이상에서 열거한 대상자의 성적호기심 및 폭력정도
와 대상자의 발달단계는 “소스라침”과 “더러움”의 표
현을 결정하는 기본적인 틀이라는 점에서 맥락을 형
성한다.

정도성과 발달단계는 각각 강도, 단계의 속성을 지
니며 정도의 영역은 강-약, 미성년기-성년기이다.

【중재상황】반응형태, 성격, 회귀성, 정보량, 가족지
지, 면식정도

본 연구에서 근거자료를 분석한 결과 “소스라침”과
“더러움”의 전개과정이 주변사람들의 반응형태, 대상
자의 성격, 당한 성폭력의 회귀성, 성폭력에 대해서
대상이 가지고 있는 정보량, 가족지지, 가해자에 대
한 피해자의 면식정도에 따라서 달라진다.

주변사람들의 반응이 보호적이면서 대상자의 성격
이 개방적이고 발생한 성폭력의 유형이 다수인시 경
험하는 것이며, 대상자가 성폭력에 대한 정보량이 많
고 가족들이 강한 응집력으로 대상자를 지지해주는
상황에서 가해자에 대한 면식정도가 약할수록 대상자
는 “소스라침”과 “더러움”에 대한 대처에 있어서 다른
사람의 도움을 요청하는 알림·피신의 선택이 촉진되
고 반대로 은폐·피신의 선택은 억제된다. 이와 대조
적으로 주변사람의 반응이 배타적이면서 발생한 성폭
력의 유형이 다수인이 경험하고 있지 않으며 성폭력
에 대한 정보량이 적고 가족들의 약한 응집력으로 대
상자가 지지를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가해자에 대한
면식정도가 강할수록 대상자는 “소스라침”과 “더러
움”에 대한 대처에 있어서 은폐·피신으로의 선택이
촉진되고 알림·피신으로의 방법이 억압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 맥락의 속성과 정도의 영역

범 주	속 성	정도의 영역
정도성	강 도	강함-약함
발달단계	단 계	미성년기-성년기

표 5. 중재상황의 속성과 정도의 영역

범 주	속 성	정도의 영역
반응형태	형 태	보호적-배타적
성 격	성 격	개방적-폐쇄적
발생빈도	빈 도	찾음-드물
정 보 량	양	많음-적음
가족지지	응 집 력	강함-약함
면식정도	강 도	강함-약함

이외같이 반응형태, 성격, 회귀성, 정보량, 가족지
지, 면식정도는 주어진 상황속에서 전략을 억제하거
나 촉진어는 방향으로 작용하는 구조적 상황이라는
점에서 중재상황이라고 말할 수 있다.

반응형태, 성격, 회귀성, 정보량, 가족지지, 면식정
도의 속성은 각각 형태, 성격, 빈도, 양, 응집력, 강도
이며 정도의 영역은 보호적-배타적, 개방적-폐쇄적,
찾음-드물, 많음-적음, 강-약, 강-약이다.

【전략】은폐, 피신, 알림

본 연구에서 근거자료를 분석한 결과 대상자는 “소
스라침”과 “더러움”에 대한 대처를 침묵하거나 비밀
로 하여 숨기고 잊으려고 노력하면서 억압하여 은폐
하거나 현상을 발생시킨 상황에서 도피하거나 그 상
황에 다시 노출되지 않도록 피신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소스라침”과 “더러움”을 드러내고 털어놓으며 가
족들과 상의하거나 보호시설, 경찰서를 방문하여 도
움을 요청하기도 한다.

이상의 모든 행동은 모두 일정한 상황 또는 맥락 속
에 주어진 현상 즉 “소스라침”과 “더러움”을 관리하거
나 이에 대응하려는 대상자의 작용/반작용이라는 점
에서 전략이라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중심현상인 “소스라침”과 “더러움”에
대한 대처전략으로는 “숨김”, “억압”, “자학”, “자위”,
“피함”, “도움요청” 등의 범주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
타났다.

【결과】부정적내재화, 긍정적변화추구

본 연구에서 근거자료를 분석한 결과 나타난 범주

중 결과에 속하는 것으로는 "위축", "증오", "혼란", "기피", "남음", "변화추구" 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 과정분석

Strauss & Corbin(1990)에 따르면 과정(process)이란 시간의 경과와 더불어 일어나는 사건의 흐름을 충분히 느낄 수 있을 정도로 설명되어져야 하며 현상은 시간의 흐름을 따라 전개되는 일련의 선후관계의 형태로도 관찰이 가능하다고 하였다.

이에 따라 본 연구의 핵심범주는 "소스라침"과 "더러움"의 변형과정으로 다음의 네 과정으로 설명할 수 있다.

1) "소스라침"과 "더러움"의 생성과정

돌발적 혹은 강제적으로 성폭력을 당한 여성들은 급작스러운 뜻밖의 상황에서 당황하면서 놀라고 소름이 끼칠 정도의 공포속에서 가해자의 비인간적인 행위에 불결함과 치욕스러움을 경험하면서 생성된 "소스라침"과 "더러움"을 인지한다.

이와같이 돌발적 혹은 강제적 사고를 당함이라는 작용에 대한 반작용으로 생성된 "소스라침"과 "더러움"의 강도는 대상자의 성격호기심 및 발달단계, 가해자의 폭력정도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난다.

2) "소스라침"과 "더러움"의 거부과정

생성된 "소스라침"과 "더러움"은 바로 거부의 과정을 거친다.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소스라침"과 "더러움"은 부정되어지면서 거부된다.

죄의식, 수치심, 모욕감, 자책, 증오, 공포를 동반하는 "소스라침"과 "더러움"의 거부과정은 표출과정으로 이어지는데 이는 돌발적 혹은 강제적 사고에 의해 초래된 견디기 힘든 감정들을 전략을 통해 표출하는 것이다.

3) "소스라침"과 "더러움"의 표출과정

"소스라침"과 "더러움"은 주어진 맥락과 상황속에서 선택된 전략을 통하여 표출된다. 그러므로 선택된 전략에 따라 "소스라침"과 "더러움"의 표출은 각각 다르게 나타난다.

주변반응, 피해자의 성격, 회귀성, 정보량, 가족지지, 면식정도는 전략의 선택을 촉진하거나 억제하는 방향으로 작용한다.

이와같은 상호작용을 통하여 "소스라침"과 "더러움"은 은폐, 피신, 알림으로 표출된다.

4) "소스라침"과 "더러움"의 변형과정

"소스라침"과 "더러움"은 시간의 흐름을 따라 생성-거부-표출-변형의 과정을 거치는 시간적 현상이다.

여기에서 말하는 변형은 위축, 증오, 혼란, 기피, 남음등과 같은 부정적 내재화로의 변형 및 변화추구와 같은 긍정적인 변형을 모두 포함하는 포괄적인 결과를 의미한다.

이러한 결과의 발생과 함께 "소스라침"과 "더러움"이라고 하는 하나의 현상에 대한 변형과정은 마무리되는데 주어진 맥락과 구조적 상황의 상호작용에 따라 나타난 결과는 서로 다르다.

3. 가설적 정형화

본 연구에서 근거자료를 분석한 결과 중심현상은 "소스라침"과 "더러움"으로 나타났고, 맥락은 정도성과 발달단계이었으며, 중재상황은 반응형태, 성격, 회귀성, 정보량, 가족지지, 면식정도로 나타났다. 이 중에서 근거자료 속에 그 속성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맥락과 중심현상사이에 존재할 수 있는 모든 가설적 관계와 중재상황과 중심현상사이에 존재할 수 있는 모든 가설적 관계를 도출하여 정형화해보면 아래와 같다.

- 1) "소스라침"과 "더러움"이 강하고 대상자의 성적 호기심이 강한 경우
- 2) "소스라침"과 "더러움"이 강하고 대상자의 성적 호기심이 약한 경우
- 3) "소스라침"과 "더러움"이 약하고 대상자의 성적 호기심이 강한 경우
- 4) "소스라침"과 "더러움"이 약하고 대상자의 성적 호기심이 약한 경우
- 5) "소스라침"과 "더러움"이 강하고 가해자의 폭력 정도가 심한 경우
- 6) "소스라침"과 "더러움"이 강하고 가해자의 폭력 정도가 경한 경우
- 7) "소스라침"과 "더러움"이 약하고 가해자의 폭력 정도가 심한 경우
- 8) "소스라침"과 "더러움"이 약하고 가해자의 폭력 정도가 경한 경우
- 9) "소스라침"과 "더러움"이 강하고 대상자의 발달 단계가 미성년인 경우

- 10) "소스라침"과 "더러움"이 강하고 대상자의 발달단계가 성년인 경우
- 11) "소스라침"과 "더러움"이 약하고 대상자의 발달단계가 미성년인 경우
- 12) "소스라침"과 "더러움"이 약하고 대상자의 발달단계가 성년인 경우
- 13) "소스라침"과 "더러움"이 강하고 대상자 주변 반응이 보호적인 경우
- 14) "소스라침"과 "더러움"이 강하고 대상자 주변 반응이 배타적인 경우
- 15) "소스라침"과 "더러움"이 약하고 대상자 주변 반응이 보호적인 경우
- 16) "소스라침"과 "더러움"이 약하고 대상자 주변 반응이 배타적인 경우
- 17) "소스라침"과 "더러움"이 강하고 대상자의 성격이 개방적인 경우
- 18) "소스라침"과 "더러움"이 강하고 대상자의 성격이 폐쇄적인 경우
- 19) "소스라침"과 "더러움"이 약하고 대상자의 성격이 개방적인 경우
- 20) "소스라침"과 "더러움"이 약하고 대상자의 성격이 폐쇄적인 경우
- 21) "소스라침"과 "더러움"이 강하고 회귀성이 낮은 성폭력인 경우
- 22) "소스라침"과 "더러움"이 강하고 회귀성이 드문 성폭력인 경우
- 23) "소스라침"과 "더러움"이 약하고 회귀성이 낮은 성폭력인 경우
- 24) "소스라침"과 "더러움"이 약하고 회귀성이 드문 성폭력인 경우
- 25) "소스라침"과 "더러움"이 강하고 성폭력에 대한 정보가 많은 경우
- 26) "소스라침"과 "더러움"이 강하고 성폭력에 대한 정보가 적은 경우
- 27) "소스라침"과 "더러움"이 약하고 성폭력에 대한 정보가 많은 경우
- 28) "소스라침"과 "더러움"이 약하고 성폭력에 대한 정보가 적은 경우
- 29) "소스라침"과 "더러움"이 강하고 가족 응집력이 강한 경우
- 30) "소스라침"과 "더러움"이 강하고 가족 응집력이

약한 경우

- 31) "소스라침"과 "더러움"이 약하고 가족 응집력이 강한 경우
- 32) "소스라침"과 "더러움"이 약하고 가족 응집력이 약한 경우
- 33) "소스라침"과 "더러움"이 강하고 가해자와의 면식정도가 강한 경우
- 34) "소스라침"과 "더러움"이 강하고 가해자와의 면식정도가 약한 경우
- 35) "소스라침"과 "더러움"이 약하고 가해자와의 면식정도가 강한 경우
- 36) "소스라침"과 "더러움"이 약하고 가해자와의 면식정도가 약한 경우

4. 관계진술

본 연구에서 근거자료를 분석한 결과, 중심현상은 "소스라침"과 "더러움", 인과적 조건은 "당함", 맥락은 "정도성", "발달단계", 중재상황은 "반응형태", "성격", "회귀성", "정보량", "가족지지", "면식정도", 대처전략은 "은폐", "피신", "알림", 결과는 "부정적 내재화", "긍정적 변화추구"로 나타났다.

이상의 범주들에 대해 다음과 같은 관계진술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 1) 대상자의 성적호기심이 강할수록 "소스라침"과 "더러움"은 약해질 것이다.
- 2) 대상자의 성적호기심이 약할수록 "소스라침"과 "더러움"은 강해질 것이다.
- 3) 가해자의 폭력정도가 심할수록 "소스라침"과 "더러움"은 강해질 것이다.
- 4) 가해자의 폭력정도가 경할수록 "소스라침"과 "더러움"은 약해질 것이다.
- 5) 대상자가 미성년 일수록 "소스라침"과 "더러움"은 강해질 것이다.
- 6) 대상자가 성년 일수록 "소스라침"과 "더러움"은 약해질 것이다.
- 7) 피신은 주어진 상황과 관계없이 어느경우에나 발생할 것이다.
- 8) "소스라침"과 "더러움"이 약할수록 알림·피신할 것이다.
- 9) "소스라침"과 "더러움"이 강할수록 은폐·피신할 것이다.

10) 대상자의 주변반응이 보호적 일수록 "소스라침"과 "더러움"에 대한 대처를 알림·피신으로 나타낼 것이다.

11) 대상자의 주변반응이 배타적 일수록 "소스라침"과 "더러움"에 대한 대처를 은폐·피신으로 나타낼 것이다.

12) 대상자의 성격이 개방적 일수록 "소스라침"과 "더러움"에 대한 대처를 알림·피신으로 나타낼 것이다.

13) 대상자의 성격이 폐쇄적 일수록 "소스라침"과 "더러움"에 대한 대처를 은폐·피신으로 나타낼 것이다.

14) 발생된 성폭력의 빈도가 잦을수록 "소스라침"과 "더러움"에 대한 대처를 알림·피신으로 나타낼 것이다.

15) 발생된 성폭력의 빈도가 드물수록 "소스라침"과 "더러움"에 대한 대처를 은폐·피신으로 나타낼 것이다.

16) 성폭력에 대한 정보가 많을수록 "소스라침"과 "더러움"에 대한 대처를 알림·피신으로 나타낼 것이다.

17) 성폭력에 대한 정보가 적을수록 "소스라침"과 "더러움"에 대한 대처를 은폐·피신으로 나타낼 것이다.

18) 대상자 가족의 응집력이 강할수록 "소스라침"과 "더러움"에 대한 대처를 알림·피신으로 나타낼 것이다.

19) 대상자 가족의 응집력이 약할수록 "소스라침"과 "더러움"에 대한 대처를 은폐·피신으로 나타낼 것이다.

20) 가해자와의 면식정도가 약할수록 "소스라침"과 "더러움"에 대한 대처를 알림·피신으로 나타낼 것이다.

21) 가해자와의 면식정도가 강할수록 "소스라침"과 "더러움"에 대한 대처를 은폐·피신으로 나타낼 것이다.

22) "소스라침"과 "더러움"에 대한 대처를 알림·피신으로 나타낼수록 긍정적 변화를 추구하게 될 것이다.

23) "소스라침"과 "더러움"에 대한 대처를 은폐·피신으로 나타낼수록 부정적 내재화를 초래하게 될 것

이다.

5. 가설적 관계개요

본 연구의 중심현상과 각 범주간의 관계, 즉 중심현상이 어떠한 인과적 상황에서 발생되었는지, 또한 어떠한 맥락과 중재상황 속에서 어떠한 전략을 통해, 어떠한 결과가 발생했는가를 분석적, 서술적 형태로 기술하는 가설적 관계개요는 다음과 같이 나타났다.

성폭력 피해여성의 경험은 "소스라침"과 "더러움"의 생성-거부 표출-변형과정이다. 돌발적, 강제적 사고에 의해서 성폭력을 당한 대상자는 당황함, 끔찍함, 아찔함, 경이로움, 불결함들을 경험하면서 자신의 내부에 생성된 "소스라침"과 "더러움"을 인지한다.

생성된 "소스라침"과 "더러움"의 강도는 대상자의 성적호기심의 정도 및 발달단계, 가해자의 폭력정도와 상호작용에 의해서 결정된다. 그러므로 대상자에게 생성된 "소스라침"과 "더러움"의 강도에는 차이가 있다. "소스라침"과 "더러움"이 생성되면 대상자는 그 상황을 부정하면서 거부하고 대처전략을 선택하여 "소스라침"과 "더러움"을 표출한다. "소스라침"과 "더러움"의 강도와 '주변반응', '피해사 성격', '회귀성', '정보량', '가족지지', '면식정도' 등 구조적 상황과의 상호작용과정은 대상자가 "소스라침"과 "더러움"의 상황에서 숨김, 연안, 자학, 자위, 피함 등의 '은폐·피신'의 대처를 선택하느냐, 도움요청, 피함등의 '알림·피신'의 대처를 선택하느냐에 주요한 영향을 미친다.

선택된 전략에 의해서 표출된 "소스라침"과 "더러움"의 변형은 각각 다르게 나타난다. "소스라침"과 "더러움"을 '은폐·피신'의 전략으로 표출한 경우, "소스라침"과 "더러움"은 위축, 증오, 혼란, 기피, 남음등으로 내재화되어 대인관계, 성관계, 결혼생활 장애를 초래하는 부정적인 변형을 할 가능성이 증가한다.

반면에 "소스라침"과 "더러움"을 '알림·피신'의 전략으로 표출한 경우, "소스라침"과 "더러움"은 자신의 상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그 상황에서 벗어나고자 노력하는 즉 자신감회복을 위해 변화를 추구하는 긍정적인 변형을 할 가능성이 증가한다

6. 유형분석

유형은 자료분석결과와 근거자료를 지속적으로 비교, 검토하여 각 범주간에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관계

를 제시하는 것으로 성폭력 피해여성이 경험하는 “소스라침”과 “더러움”은 “소스라침”과 “더러움”의 강도, 대상자의 성적호기심 정도, 발달단계, 가해자의 폭력 정도 그리고 주변반응형태, 피해자성격, 회귀성, 정보량, 가족지지, 면식경도에 따라 다음과 같이 4 가지 유형이 존재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1) 가해자의 폭력정도가 강하지만 미성년인 대상자의 성적호기심이 강하여 소스라침과 더러움이 약할 경우, 성폭력에 대한 정보가 적으며 주변반응이 배타적이면서 발생한 성폭력의 빈도가 드문것이면, 대상자의 성격이 개방적이고 가족의 응집력이 강하면서 가해자에 대한 면식정도가 약할지라도 소스라침과 더러움에 대한 은폐·피신의 대처로 부정적인 내재화를 초래한다.

이 유형에 해당되는 사례는 다음과 같다.

대상자는 국민학교 고학년때에 집앞에서 밤에 낮선 40-50대 남자로부터 차안에서 강간을 당했다. 평소에 성적 호기심이 강하였던 대상자는 뜻밖의 상황에 놀라고 당황하기는 하였으나 강간을 당할당시 “참 신기했어요. 들뜬 기분이었구요. 그 기분에 취했어요... 참 착한 사람같이 보였어요. 잘 대해주었어요...”라고 표현할 정도로 그 당시를 그렇게 치욕스럽게 느끼지 않았으며 가해자에 대한 연민의 정도 느끼고 있었다.

대상자는 그 사실을 안 어머니의 반응과 선생님의 반응에서 자신이 뭔가 좋지 않은 일을 당했다고 느끼게 되었는데 이러한 주변의 태도에 의해서 대상자는 그 당시 상황을 어느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으면서 숨기고 은폐하였다. 주변에서 그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으면 대상자는 자신이 당한일에 대해서 크게 상처받지 않고 지낼수도 있었다고 한다.

이렇게 그 상황을 은폐하고 지내온 대상자는 대학 생활을 시작하면서 자신의 상황이 남자친구와 사귀면서 관계를 맺는 대상자 친구의 경우와 뭐가 다른가를 생각하면서 자신을 추스리고 다스려서 그 상황에서 벗어나고자 애쓰기는 하지만 다소 소극적이면서 소심한 성격의 대상자는 내면에 내재된 위축, 혼란, 기피로 인해 대인관계 및 사회생활적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2)가해자의 폭력정도가 약하고 성년인 대상자의 성적 호기심이 약하여 소스라침과 더러움이 약할 경우, 성폭력에 대한 정보가 많으며 주변반응이 보호적이고

발생된 성폭력의 빈도가 잦은것 이면서, 대상자의 성격이 개방적일 뿐 아니라 가족의 응집력이 강하고 가해자에 대한 면식정도가 약하면 소스라침과 더러움에 대한 알림·피신의 대처로 긍정적인 변화를 추구한다.

이 유형에 해당되는 사례는 다음과 같다.

대상자는 30대의 결혼을 한 두 자녀의 어머니로 지하철에서 낮선 중년의 남자로 부터 신체적인 밀착을 당하고, 음란전화를 통하여 언어적 성추행을 당한 경험이 있었다.

대상자의 경우는 밝고 개방적인 성격으로 성추행을 당할 당시는 기분이 몹시 불쾌하기는 하였으나 이러한 사실을 가족들에게 이야기 하면서 자신을 어떻게 방어해야 하는지에 대한 조언을 구하였다.

성추행을 당할때마다 그 사실을 털어놓고 도움을 요청하는 대상자에게 주변에서도 자신들의 경험을 이야기 하면서 해결방안을 모색하는데에 도움이 되는 많은 정보를 제공해주고 있었다.

그리하여 대상자는 다양한 형태의 자기보호 방법을 습득해 가고 있었다.

3) 가해자의 폭력정도가 강하면서 미성년인 대상자의 성적 호기심이 약하여 소스라침과 더러움이 강할 경우, 성폭력에 대한 정보가 많고 주변반응이 보호적이면서 대상자의 성격이 개방적이면, 발생한 성폭력의 빈도가 드문것이고 가족의 응집력이 약하면서 가해자에 대한 면식정도가 강할지라도 소스라침과 더러움에 대한 알림·피신의 대처로 긍정적인 변화를 추구한다.

이 유형에 해당되는 사례는 다음과 같다.

대상자는 불우한 가정환경에서 성장해 오면서 중 1때 교도소에서 출옥한 아버지와 한 방에서 자다가 강간을 당한 경우이었다.

성적 지식이 전혀 없었던 대상자는 첫번의 경험에서 큰 충격을 받고 매우 혼란한 상태였는데 강제적인 성관계를 지속적으로 요구해오는 아버지에게 시달리면서 대상자는 성폭력이 무엇인가를 알게되었고 더 이상 견딜수 없다고 판단한 대상자는 수녀님을 찾아가 의논하게 되었다.

따뜻한 수녀님의 배려로 보호시설에서 보호를 받게 된 대상자는 처음에는 아버지로 부터 성폭력을 당한 충격에서 헤어나지 못하여 힘들어 하였으나 시간이

지날수록 차츰 공포감과 불안감이 감소되었고 앞으로의 생활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도 세우게 되었다.

4) 가해자의 폭력정도가 강하면서 미성년인 대상자의 성적호기심이 약하여 소스라침과 더러움이 강할 경우, 성폭력에 대한 정보가 적으며 주변반응이 배타적이고 발생한 성폭력의 빈도가 드문것 이면서, 대상자의 성격이 폐쇄적일 뿐 아니라 가족의 응집력이 약하고 가해자에 대한 면식정도가 강하면 소스라침과 더러움에 대한 은폐·피신의 대처로 부정적인 내재화를 초래한다.

이 유형에 해당되는 사례는 다음과 같다.

대상자는 국민학교 2학년때부터 아버지에게 성폭력을 당하여왔다. 권위적인 아버지 밑에서 가족들은 소인하게 지내고 있었으며 서로에게 무관심하였다.

대상자는 지속되는 아버지의 행패에 진저리 나 있었지만 어쩔 수 없이 당하기만 하는 상황이었다.

보호해주고 지지해줄 수 있는 지지자가 없는 상황에서 폐쇄적인 성격의 대상자는 공부에만 몰두하여 대학에 들어가는 하였으나 아버지에 대한 증오, 분노, 혐오, 적개심으로 남성불신과 남성기피가 깊이 내재되어 있어 대인관계 및 사회생활 적응에 많은 장애를 받고 있었다.

V. 논 의

본 장에서는 근거자료의 분석과정에서 드러난 중심현상 "소스라침"과 "더러움"이 인과적 조건, 맥락, 중재상황, 전략, 결과등에 속하는 각 범주들과 어떻게 인과적으로 연결되어 있는가에 대해서 논하고 연구결과에 따른 성폭력 피해여성의 경험에 관해 기술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근거자료 분석결과 성폭력 피해여성의 경험은 "소스라침"과 "더러움"이 중심현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성폭력 피해여성은 급작스러운 폭력상황에서 당황하고 소름이 끼치는 공포를 경험하는데 이는 믿고 의지해온 대상으로부터 무방비 상태에서 당한 폭력인 경우 그 정도가 더 심하였다.

성폭력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강간의 88%가 서로 아는 관계에서 일어나고 있음을 지적한 이명선(1989)의 연구는 성폭력 피해여성이 경험하는 "소스라침"과 "더러움"의 정도를 간접적으로 시

사해준다.

본 연구의 자료분석결과 언어적 성추행, 성희롱, 강간등을 당한 대상자들은 모욕적이고 비인간적인 가해자의 행위로 인하여 그 상황을 매우 불쾌하고 더러우며 치욕스러운 경험으로 받아들이고 있었다. 일반적으로 강간이 아닌 강간미수나 추행, 성적희롱등은 피해가 미미할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가벼운 추행의 경우도 45.5%가 일어나 공부에 지장을 받고 있으며, 모든 종류의 성폭력은 여성들에게 광범위한 피해를 입히고 있다고 한 한국성폭력 상담소(1995)의 보고는 성폭력을 당한 피해자들은 폭력정도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정신적, 신체적, 사회적 휴유증에 시달리고 있음을 제시해준다.

본 연구에서 근거자료를 분석한 결과 강제적인 성관계를 요구하면서 지속적인 협박을 받는 상황, 설마하는 마음으로 방심한 상황, 뜻밖의 급작스러운 상황에서의 "당함"은 "소스라침"과 "더러움"의 인과적 조건으로 작용하고 있었으며 피해자의 성적호기심의 정도, 가해자의 성폭력 정도, 피해자의 발달단계는 "소스라침"과 "더러움"의 강도에 영향을 미치는 일련의 구조적 장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분석결과는 여성들이 성폭력은 무엇이며, 어떤 상황에서 발생하고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를 올바르게 인식하고 있어야 함을 보여준다.

여성들이 성폭력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이에대한 적절한 대책을 강구하기 위해서 이성(1995)은 교육적인 차원에서의 개혁을 주장한다. 아직까지 남녀 간의 관계를 어떠한 방식으로 맺어나가는 것이 바람직한가에 대한 구체적인 성적 각본(Week, 1986)이 부재한 우리사회에서는 남녀평등교육을 토대로 한 남녀관계가 형성되어야함을 강조하면서, 자신의 의사를 분명히 밝힐수 있는 교육, 그리고 상대가 원하지 않는것은 하지 말아야 함을 정확히 알려주는 교육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다. 여성에게만 중요시되는 순결교육이 옳다고 인정된다면 남성들에게도 똑같은 내용의 교육이 필요하다고 하였는데 여성에게만 강요되는 순결교육은 여성들로 하여금 남녀관계에서 공정성을 확보할 수 없게 하고 있기 때문이다.

박명선(1995)은 새로운 성문화 즉 남성과 여성이 평등한 주체로서 인간적 교류를 통해 이루어진 성행위만이 진정한 성으로 인정되는 그러한 문화를 만들

기 위해서는 사회적인 홍보와 청소년들에 대한 바른 성교육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성인들을 대상으로 새로운 성문화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고 청소년들에게는 건전한 성의식을 심어주어야 한다고 하였다.

본 연구의 자료분석결과 주어진 상황 또는 맥락 속에서 전략을 촉진하거나 억제하는 방향으로 작용하는 중재상황은 주변반응, 피해자 성격, 회귀성, 성폭력 정보, 가족지지, 면식정도 등이었고 성폭력을 당한 피해여성들의 대응전략은 은폐, 피신, 알림 등으로 나타났다.

성폭력의 피해가 주변사람 및 가족들에게 알려지는 경우 피해자는 적절한 도움을 받기는 커녕 오히려 위심을 받고 비난을 받는 또 다른 피해를 겪고 있었다. 성폭력의 한 형태인 강간은 분명히 범죄의 하나로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강간이 일어나면 가해자보다 오히려 피해자가 부끄러워 하며 가해자에 못지 않는 사회적 비난이 피해자에게 쏟아지게 된다. 그리하여 피해자는 성폭력을 당한 사실을 은폐하거나 피신하는 대응전략을 선택하게 된다. 이에 대해 이성은(1995)은 남성 중심적인 우리나라 성 문화의 문제점을 제시하면서 성폭력 문제해결의 출발은 개인에게만 한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문제를 묵인하는 사회 전반적인 문화와 제도의 변화를 함께 수반해야 한다고 하였다.

피해자의 성격 또한 대응전략 선택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폐쇄적인 성격의 피해자는 자기 홀로 삭이는 과정에서 해결되지 않고 남아있는 감정과 공포로 혼란과 성관계장애, 남성기피와 남성공포, 적대감 등을 나타내고 있었는데 어린시절에 성폭력을 당한 경험이 있는 여성들 중 많은 여성들이 만족스러운 사랑이나 결혼관계로 들어가기 어렵고, 성관계나 임신에 대해서도 피해망상을 갖게된다고 한 이명선(1991)의 보고는 은폐·피신의 대응이 초래할 수 있는 정신적인 휴유증의 심각성을 보여주고 있다.

피해자가 당한 성폭력이 다수인이 경험하는 폭력일수록 피해자는 알림·피신으로의 대응을 선택하지만 회귀할수록 피해자는 수치심과 모욕감을 느끼면서 은폐·피신으로 대응하였다. 이러한 사실은 강간피해자들은 법적해결외에 심리적 지원이나 신체적 치료를 필요로 하지만 강간을 피해자가 부끄러워하고 죄책감을 느끼는 범죄로 만드는 사회에서는 피해자가 필요

로 하는 도움을 얻기가 어렵다고 보고한 김선영(1989)의 연구에 의해서도 지지된다.

성폭력에 대한 정보량도 피해자의 대응선택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는데 성폭력에 대한 올바른 인식은 적절한 대응을 선택하도록 유도하는 반면에 성폭력에 대한 잘못된 통념의 결과는 바람직하지 못한 대응선택을 유도하였다. 성폭력에 대한 잘못된 통념의 수용은 신고율을 떨어뜨리고 피해자가 받은 상처의 극복을 어렵게 만든다고 한 성폭력 상담소의 보고(1995)는 이를 뒷받침해주고 있다.

가해자와의 면식정도도 피해자의 대응전략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되어 가해자와의 면식정도가 강할수록 피해자는 은폐·피신의 대응을 선택하였다. 성폭력을 저지르는 가해자는 심한 추행의 경우에는 80.6%, 강간의 경우에는 80.1%, 강간미수의 경우에는 78.1%, 어린이 성추행의 경우에는 74.3%가 아는 사람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고한 박종문(1992)의 연구를 통해서 볼때 많은 성폭력 피해자들이 그 사실을 노출시키지 못하고 불안과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는 사실을 짐작할 수가 있다.

본 연구의 자료분석 결과 성폭력을 당한 피해여성들은 자신이 선택한 대응전략에 따라 "소스라침"과 "더러움"을 부정적으로 내재화 하거나, 그 상황에서 벗어나고자 노력하여 자신감을 회복해 나가는 긍정적인 변화를 추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폭력 피해여성의 휴유증은 정신적·신체적·사회적으로 광범위하게 나타나며 상당수의 피해자들이 불면증, 우울증, 무기력증에 시달리며 약물중독이 되거나 자해행동까지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는 단기간에 회복되기 어렵고 장기간에 걸쳐 피해자들을 괴롭힌다고 한 한국성폭력 상담소(1995)의 보고는 "소스라침", "더러움"의 부정적인 내재화는 심리적·신체적으로 위기상황을 초래함을 나타내준다.

성폭력을 당한 피해여성을 발견하면 피해직후의 혼란스럽고 무기력한 상태에서 병원이나 집, 기타 안전한 곳으로 옮겨서 보호해주는 일이 요구되었으며, 성폭력이 재발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도 이 작업은 필요하였다. 다음에는 피해자에게 필요한 긴급한 의학적·심리적 조치가 취해져야 하고 신고를 원할 경우 증거보전 및 법적 절차에 대한 정보도 제공해 주어야 하였다.

박애선(1995)은 성폭력 피해여성들에게는 열악한 상황으로 부터의 환경분리와 보호등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생활 속에서의 적극적인 지지를 강조 하였다. 성폭력 피해여성들은 보호시설에서 자신의 성폭력 경험을 다른 피해자들과 나눔으로써 공감대가 형성되어 자기비하등에서 벗어날 수 있고 서로 위로해주고 받는 과정에서 나 혼자만이 이러한 상황에 처해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에 안도감을 느끼고 그 상황은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책임질 필요가 없다는 사실도 깨닫게 된다고 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에 따르면 성폭력을 당한 피해여성들이 알림·피신으로 대처할수록 긍정적인 변화를 추구할 가능성이 증가하는 반면에 은폐·피신으로 대처할수록 부정적인 내재화를 조래할 가능성이 증가하였다.

그러므로 간호사는 성폭력 피해여성의 간호중재시 그들이 성폭력을 당한 사실을 알리면서 도움을 구하여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긍정적인 변화추구에 초점을 두어야 하겠다.

다각적인 방면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성폭력 피해여성들에게 본 연구에서 개발된 이론에 근거한 간호사들의 효율적이고 실제적인 간호중재는 성폭력 피해여성들이 "소스라침", "더러움"에서 벗어나 긍정적인 변화를 추구하도록 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VI. 결 론

본 연구는 성폭력 피해여성의 경험을 서술하고 분석하여, 이를 근거이론으로 정립함으로써 간호사들이 실무현장에서 성폭력 피해여성에 대한 보다 폭넓은 이해를 바탕으로 그들에게 실제적이고 효율적인 간호중재를 제공하는데 도움이 되는 이론적 틀을 제시하고자 시도하였다.

근거자료 분석과정에서 찾아낸 범주들은 '성폭행', '협박', '방심', '당황함', '끔찍함', '아찔함', '경이로움', '불결함', '성적호기심', '폭력정도', '피해자연령', '주변반응', '피해자성격', '다수인의 경험', '성폭력 정보', '가족관계', '친분관계', '숨김', '억압', '자학', '자위', '피함', '도움요청', '위축', '중요', '혼란', '기피', '남음', '변화추구' 등 29가지 범주이었다. 이들 29가지 범주는 다시 '당함', '놀람', '불결', '정도성', '발달단계', '반응형태',

'성격', '회귀성', '정보량', '가족지지', '면식정도', '은폐', '피신', '알림', '부정적 내재화', '긍정적 변화추구' 등 16가지 상위범주로 통합하였다.

분석과정에서 찾아낸 모든 범주와 연결되어 있는 핵심범주는 "소스라침"과 "더러움"으로 나타났으며 하위범주 '당황함', '끔찍함', '아찔함', '경이로움', '불결함'을 핵심범주인 '소스라침'과 '더러움'으로 통합하였다.

성폭력 피해여성이 경험하는 '소스라침'과 '더러움'은 생성, 거부, 표출, 변형의 과정을 거치며 부정적 내재화를 조래하거나 긍정적 변화를 추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근거자료 분석과정에서 나타난 각 범주들을 통합하는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23가지의 가설을 도출할 수 있었다.

- 1) 대상자의 성적호기심이 강할수록 "소스라침"과 "더러움"은 약해질 것이다.
- 2) 대상자의 성적호기심이 약할수록 "소스라침"과 "더러움"은 강해질 것이다.
- 3) 가해자의 폭력정도가 심할수록 "소스라침"과 "더러움"은 강해질 것이다
- 4) 가해자의 폭력정도가 경할수록 "소스라침"과 "더러움"은 약해질 것이다.
- 5) 대상자가 미성년 일수록 "소스라침"과 "더러움"은 강해질 것이다.
- 6) 대상자가 성년 일수록 "소스라침"과 "더러움"은 약해질 것이다.
- 7) 피신은 주어진 상황과 관계없이 어느경우에나 발생할 것이다.
- 8) "소스라침"과 "더러움"이 약할수록 알림·피신할 것이다.
- 9) "소스라침"과 "더러움"이 강할수록 은폐·피신할 것이다.
- 10) 대상자의 주변반응이 보호적 일수록 "소스라침"과 "더러움"에 대한 대처를 알림·피신으로 나타낼 것이다.
- 11) 대상자의 주변반응이 배타적 일수록 "소스라침"과 "더러움"에 대한 대처를 은폐·피신으로 나타낼 것이다.
- 12) 대상자의 성격이 개방적일 수록 "소스라침"과 "더러움"에 대한 대처를 알림·피신으로 나타낼 것이

다.

13) 대상자의 성격이 폐쇄적일 수록 "소스라침"과 "더러움"에 대한 대처를 은폐·피신으로 나타낼 것이다.

14) 발생한 성폭력의 빈도가 잦은것 일수록 "소스라침"과 "더러움"에 대한 대처를 알림·피신으로 나타낼 것이다.

15) 발생한 성폭력의 빈도가 드문것 일수록 "소스라침"과 "더러움"에 대한 대처를 은폐·피신으로 나타낼 것이다.

16) 성폭력에 대한 정보가 많을수록 "소스라침"과 "더러움"에 대한 대처를 알림·피신으로 나타낼 것이다.

17) 성폭력에 대한 정보가 적을수록 "소스라침"과 "더러움"에 대한 대처를 은폐·피신으로 나타낼 것이다.

18) 대상자 가족의 응집력이 강할수록 "소스라침"과 "더러움"에 대한 대처를 알림·피신으로 나타낼 것이다.

19) 대상자 가족의 응집력이 약할수록 "소스라침"과 "더러움"에 대한 대처를 은폐·피신으로 나타낼 것이다.

20) 가해자와의 면식정도가 약할수록 "소스라침"과 "더러움"에 대한 대처를 알림·피신으로 나타낼 것이다.

21) 가해자와의 면식정도가 강할수록 "소스라침"과 "더러움"에 대한 대처를 은폐·피신으로 나타낼 것이다.

22) "소스라침"과 "더러움"에 대한 대처를 알림·피신으로 나타낼수록 긍정적 변화를 추구하게 될 것이다.

23) "소스라침"과 "더러움"에 대한 대처를 은폐·피신으로 나타낼수록 부정적 내재화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자료분석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관계유형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은 4가지 명제를 확인할 수 있었다.

1) 가해자의 폭력정도가 강하지만 미성년인 대상자의 성적호기심이 강하여 소스라침과 더러움이 약할 경우, 성폭력에 대한 정보가 적으며 주변반응이 배타적이면서 발생한 성폭력의 빈도가 드문것이면, 대상자

의 성격이 개방적이고 가족의 응집력이 강하면서 가해자에 대한 면식정도가 약할지라도 소스라침과 더러움에 대한 은폐·피신의 대처로 부정적인 내재화를 초래한다.

2) 가해자의 폭력정도가 약하고 성년인 대상자의 성적 호기심이 약하여 소스라침과 더러움이 약할 경우, 성폭력에 대한 정보가 많으며 주변반응이 보호적이고 발생한 성폭력의 빈도가 잦은것 이면서, 대상자의 성격이 개방적일 뿐 아니라 가족의 응집력이 강하고 가해자에 대한 면식정도가 약하면 소스라침과 더러움에 대한 알림·피신의 대처로 긍정적인 변화를 추구한다

3) 가해자의 폭력정도가 강하면서 미성년인 대상자의 성적 호기심이 약하여 소스라침과 더러움이 강할 경우, 성폭력에 대한 정보가 많고 주변반응이 보호적이면서 대상자의 성격이 개방적이면, 발생한 성폭력의 빈도가 드문것이고 가족의 응집력이 약하면서 가해자에 대한 면식정도가 강할지라도 소스라침과 더러움에 대한 알림·피신의 대처로 긍정적인 변화를 추구한다.

4) 가해자의 폭력정도가 강하면서 미성년인 대상자의 성적호기심이 약하여 소스라침과 더러움이 강할 경우, 성폭력에 대한 정보가 적으며 주변반응이 배타적이고 발생한 성폭력의 빈도가 드문것 이면서, 대상자의 성격이 폐쇄적일 뿐 아니라 가족의 응집력이 약하고 가해자에 대한 면식정도가 강하면 소스라침과 더러움에 대한 은폐·피신의 대처로 부정적인 내재화를 초래한다.

가해자의 "폭력정도" 및 피해자의 "발달단계"와 "성적호기심"의 정도는 피해자가 경험하는 "소스라침"과 "더러움"의 강도에 영향을 미쳤다. 이러한 "소스라침"과 "더러움"은 피해자 주변의 "반응형태", 피해자의 "성격", 피해자가 가지고 있는 성폭력에 대한 "정보량", 피해자가 당한 성폭력의 "회귀성", "가족지지", 가해자와의 "면식정도" 등에 따라 긍정적 혹은 부정적 변형을 하였다.

피해자가 "소스라침"과 "더러움"을 경험할 때 주변반응이 보호적이면서 피해자의 성격이 개방적이고 피해자가 당한 성폭력이 다수인 경험하는 폭력이며 성폭력에 대한 정보량이 많고 가족구성원들의 응집력이 강하면서 가해자와의 면식정도가 약할수록 피해자는

주변의 보호하에 자신감을 회복해 가면서 긍정적인 변화를 추구하는 가능성이 증가하는 반면에, 주변반응이 배타적이면서 피해자의 성격이 폐쇄적이고 피해자가 당한 성폭력이 다수인이 경험하지 않는 희귀한 폭력이며 성폭력에 대한 정보량이 적고 가족 구성원들의 응집력이 약하면서 가해자와의 면식정도가 강할수록 피해자는 '위축', '중요', '혼란', '기피', '남음' 등의 부정적 내재화를 초래할 가능성이 증가하였다. 이렇게 내재화된 '위축', '중요', '혼란', '기피', '남음'은 피해자의 대인관계 및 사회적응에 저해요인이 되어 심각한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다.

이와같이 "소스라침", "더러움"의 변형은 맥락과 중재상황과의 상호작용결과에 따라 여러 가지 형태로 다르게 나타났다. 그러므로 성폭력 피해여성에 대한 간호중재는 피해자에게 중점을 두면서 가능한한 활용할 수 있는 보호시설 및 주변의 도움으로 피해자가 긍정적인 변화를 추구할수 있는 분위기 조성에 초점이 맞추어져야 하겠다.

참고문헌

- 김선영, 강간에 대한 통념의 수용에 관한 연구-경찰, 의사, 교사, 법조인, 상담원, 언론인을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대학원 석사논문.
- 대법원 판례 1970. 3. 10.
- 이명선, 강간에 대한 여성학적 접근-피해여성의 사례를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대학원 석사논문. 1989.
- 이성은, 직장내 성희롱의 순응과 저항에 관한 일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논문. 1994.
- 박종문, 성폭력희생자의 치유를 위한 목회상담,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 교육원 선교신학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한국성폭력상담소, 자라나는 아이들을 위하여-어린이 성폭행 예방과 대책-, 한국성폭력상담소 교육자료. 1991.
- 한국성폭력상담소, 어린이 성폭행 세미나자료집, 한국성폭력상담소 여름세미나. 1992.
- 한국성폭력 상담소, 한국성폭력 상담소 개소2주년 기념 자료집. 1993.
- 한국성폭력상담소, 제2의 탄생을 예고한 두개의 강의-정신적 대응방안 (이나미), 제2기 상담원교육 강의집. 1993.
- 한국성폭력상담소, 성폭력이란 무엇인가, 한국성폭력상담소 교육자료 1. 1995.
- Babara A. Gutek & Bruce Morasch "Sex-Ratio, Sex-Role Spillover and Sexual Harassment of Women at Work", Journal of Social Issue, Vol.38 No.4. 1982.
- Brink, P.N., Grounded Theory Methodology: Its Use and Processes, IMAGE, 11(1), 20-23. 1980.
- Bruce, Gottlieb "Therapeutic Intervention in a Unique form of Sexual Abuse", ed. Warner, Carmen G., Rape and Sexual Assault-Management & Intervention, 1982.
- Carmen G. Warner Rape & Sexual Assault- Management & Intervention pp121-139. 1982.
- Dale A. Masi, Organizing for Women' Issues, Strategies, and Services,(Lexington, Health), p95. 1981.
- Dovis A. Stevens "Rape Victims", Alternative Social Services for Women, ed., Naomi Gottlieb,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p235-251. 1980.
- Frank Parkin, Power, Crime & Mystification, London: Tavistock. p124. 1983.
- Glaser, B., & Strauss, A., "Awareness of dying", Chicago, Aldine. 1965.
- _____. "The discovery of grounded theory". Chicago, Aldine. 1967.
- _____. "Time for dying", Chicago, Aldine. 1968.
- G. Greer, 'Seduction is a Four-Letter Word: In L. Schulta, ed., Rape Victimology,(Illinois: C.C. Thomas), Frank Parkin(1983), Power, Crime, and Mistification,(Londen: Tavistock), p 126 재인용. 1975.
- Jane Dowdeswell Women on Rape New York Thornes Publishing Group. 1986.
- Joel Friedman, Marcica M. Boumil & Barbara E. Taylor (1992) Sexual Harassment, Health Communications, Inc.(Florida) 우영은역, 이것이 성희롱이다. 여성사. 1994.
- Kelly L. "Sexual Violence as a Continuum", Hanmer and Maynard Edited, Women, Violence and Social Control, Londen: Macmillan. 1987.
- Leininger, M.M., "Qualitative Research Methods in Nursing", New York, Grune & Stratton. 1985.
- Pauline B. Bart "Rape as a Paradigm of Sexism in Society-Victimization and Its Discontents", Womens's Studies Int.Quart., Vol.2, p345-347. 1979.
- Pauline B. Bart & Patricis H.O Brien Stopping Rape New York Pergamon Press p118. 1985.
- Rosemarie Tong Sex, Politics and Society, London:

- Longman House. p91, 1984.
- Sandra S. Tangri, Martha R. Burt & Leonor B. Johnson, "Sexual Harassment at Work: Three Explanatory Models", *Journal of Social Issues*, Vol.33, No.4, 1982.
- Spradley, J.P., "The ethnographic interview", Orlando, Florida, Holt, Rinehart and Winston, Inc. 1979.
- Strauss, A., & Corbin, J., "Basics of qualitative research: Grounded theory procedures and techniques", Newbury Park, Sage Publications. 1990.